



박진섭 감독

“목표는 5위” ‘주장’ 여름 “광주, 축구도시로 불릴 것”

프로축구 파이널라운드 미디어데이
코로나19 여파 전구단 화상회의
“상주에 시즌 2패 설욕이 1차 목표
포항에 무승 징크스도 깨고 싶어”
주장 여름 “팀 새역사 자랑스럽다”
광주 엄원상 vs 포항 송민규
영플레이어 후보 대결도 흥미진진



24일 언택트로 진행된 K리그1 파이널라운드 미디어데이에서 6개 구단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목표는 높을수록 좋다. 5위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FC 박진섭 감독이 24일 언택트로 열린 미디어데이를 통해 팀의 사상 첫 파이널라운드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대강당에 마련한 특설 스튜디오와 6개 팀의 홈경기장 또는 클럽하우스를 인터넷 화상회의 방식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광주는 정규리그 22라운드 경기에서 극적으로 6위 자리에 오르며 이날 울산현대, 전북현대, 포항스틸러스, 상주상무, 대구FC 등 경쟁한 팀들과 미디어데이 주인공이 됐다.

‘주장’ 여름과 자리를 한 광주 박진섭 감독은 “어렵게 올라온 만큼 감동스럽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많은 걸 배우고 준비한 것들 잘 보여주도록 하겠다”며 “6위도 좋은 기록이고 감사하지만 목표는 높으면 좋다. 쉽지 않겠지만 5위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광주와 5위 대구와는 승점 6점 차, 상위팀들과의 5경기인만큼 쉽지 않은 목표지만 박진섭 감독은 ‘5위’라는 또 다른 기적에 도전한다.

2012년 고향팀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뛰어들어 ‘원클럽맨’으로 광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주장 여름의 각오도 특별했다.

여름은 광주의 축구 열풍을 예고했다. 여름은 “(파이널A는) 광주에서 뛰면서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광주가 우리 팀만의 역사를 쓰고 있어서 자랑스럽고, 파이널 그룹A에 드니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며 “대구 못지않은 돌풍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남은 다섯 경기에서 천천히 광주FC만의 길을 걷도록 최선을 다해 광주를 축구 도시로 알려지게끔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새로운 역사를 다짐하는 광주는 ‘상주’전 승리를 우선 목표로도 짚었다. 광주는 포항을 시작으로 파이널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장단 후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상대라 포항전 승리로 간절하지만, 박진섭 감독은 상주의 이름을 꺼냈다. 박진섭 감독은 “아무래도 포항 징크스를 깨야 하는데 포항도 포항이지만 올 시즌 상주에게만 2패를 당했다”며 “3패 당할 수는 없다. 상주전 준비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광주는 파이널A 그룹 중 상주에만 유일하게 승점을 더하지 못했다. 1위 울산과의 두 경기를 모두 무승부로 장식한 광주는 2위 전북, 4위 포항과는 1부 1패를 기록했다.

대구와의 승부에서는 2-4 패배를 6-4 승리로 만회하면서 1승 1패. 하지만 상주와의 두 경기는 모두 0-1패였다.

상주에서 군복무를 했던 여름도 옛 은사 김태완 감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승리를 다짐했다. 역사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여름은 울산 대표 선수로 나온 이청용의 지목도 받았다.

이청용은 “여름 선수가 역적스럽게 수비해서 힘들었다”며 올 시즌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선수로 여름을 꼽았다.

여름은 “울산이라는 강팀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이청용 선배님이 그런 이야기 해주셔서 기분의 영광이다”며 웃음을 보였다.

미디어데이를 통해 파이널A 출사표를 던진 광주는 27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포항과 파이널A 첫 경기를 치른다.

광주의 포항전 첫승 여부와 함께 ‘영플레이어’ 후보인 광주 엄원상과 포항 송민규의 맞대결이 관심사다. 엄원상은 18경기에 나와 6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성적은 22경기 9골 3도움으로 송민규가 앞서었지만, 팀 기여도에서는 광주 돌풍의 중심인 엄원상에게 무거운 기대가 걸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현대家 전쟁’ 벌써 뜨거워진 그라운드

전북 vs 울산 ‘K리그1·FA컵’ 더블 우승 놓고 운명의 대결

가을 그라운드가 ‘현대가(家) 매치’로 뜨겁게 달구진다.

지난 23일 열린 2020 하나은행 FA CUP 준결승전에서 전북현대와 울산현대가 나란히 승자가 됐다. 이와 함께 K리그1에 이어 FA컵 결승도 ‘현대가 매치’로 전개된다.

전북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성남FC를 1-0으로 제압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성남에 1부 1패에 그쳤던 전북이지만 전반 10분 만에 나온 구스타보의 골을 지키면서 7년 만에 FA컵 결승에 진출했다.

전북은 준우승을 차지했던 2013년 FA컵 이후 결승무대를 밟지 못했다. 지난 2014년 FA컵 4강에서 패배를 안겨줬던 성남을 상대로 이룬 결승진출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울산현대는 안방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동해안 дер비’에서 연장승부를 넘어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다.

올 시즌 K리그1 정규리그 맞대결에서 6골을 넣으며 2승을 챙긴 울산이 전반 12분 만에 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김태완이 골키퍼 조현우에게 시도한 백패스가 빗나가면서 기록된 황당한 자책골이었다. 울산은 후반 8분 김인성의 오른쪽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데 성공했다.

이후 포항 골키퍼 강현무와 울산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쇼가 진행되면서 1-1에서 90분이 끝났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결국 승부차기로 향했다.

‘마지막 승부’에서도 양 팀 골키퍼가 선방 대결을 이어갔다.

조현우가 포항의 첫 번째 키커 일류렌코의 슛을 막아냈고, 강현무는 울산의 세 번째 키커 김인성의 슈팅을 저지했다. 이때 키 이전에 강현무가 움직였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선방이 취소됐지만, 강현무는 김인성이 재차 시도한 슈팅까지 저지했다.

3-3에서 양 팀 5번째 키커인 주니오와 팔로세비치가 나란히 실축하면서 승부는 서든데스까지 갔다. 그리고 8번째 순서에서 승부가 갈렸다.

울산 홍철이 골망을 흔들었지만 포항 송민규의 킥은 조현우를 넘지 못했다.

울산은 숨막히는 승부차기 끝에 2017년 대회 이후 3년 만에 우승컵 탈환에 도전하게 됐다.

울산과 전북의 FA 결승전이 성사되면서 두 팀은 ‘사상 첫 더블’을 놓고 우승 전쟁을 벌이게 됐다.

울산과 전북은 각각 15승 5무 2패(승점 50), 15승 3무 4패(승점 48)를 기록하며 2점 차에서 K리그1 우승 경쟁 중이다.

10월 25일 K리그1 26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하는 두 팀은 11월 4일과 7일에는 FA컵 우승컵을 다툰다. 4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 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브룩스 대체 선발은 장현식

오늘 KT전 시즌 첫 선발 양현종, 주말 7년 연속 10승 도전



KIA 타이거즈 장현식이 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KIA는 가족의 교통사고로 브룩스가 급히 출국하면서 순위 싸움의 악재를 맞았다. 한 경기 한 경기 간헐해진 시즌 막바지, 가장 확실한 선발이 빠지면서 KIA에는 ‘가을잔치’ 빨간불이 켜졌다.

장현식이 팀의 위기 상황에서 선발 기회를 얻었다.

장현식은 25일 KT 위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첫 선발에 나선다. 2017년 10월 3일 한화전 이후 첫 선발이기도 하다.

지난 8월 12일 트레이드를 통해 NC에서 온 장현식은 KIA 유니폼을 입고 16경기를 소화했다. 모두 구원투수로 나와서 16.2이닝을 던졌다.

시작은 좋았다. 장현식은 이적 후 두 번째 경기만에 승리투수가 되기도 했다.

8월 15일 SK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김기훈이 4회를 끝으로 물러나자 5회 출격, 2이닝을 무실점으로 소화하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세 번째 LG전에서는 홀드도 추가했다.

4차례 피홈런을 허용하는 등 16경기의 평균자책점은 7.01로 좋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면서 1승 1홀드를 올렸다. 또 이적 전 선발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경험 있는 장현식이 마운드 재점비의 시작점에 서게 됐다.

좌완 김기훈도 윌리엄스 감독의 구상에 있는 선발 중 한 명이다. 장현식과 김기훈의 움직임에 따라서 KIA의 순위싸움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다.

한편 가을에 이어 장현식으로 KT 2연전을 소화하는 KIA는 26일 안방으로 돌아와 롯데와 주말 2연전을 갖는다. 이만우에 이어 양현종이 선발로 출격한다. 앞선 4번의 등판에서 모두 팀의 패배를 지켜본 양현종은 ‘아홉수’를 넘어 7년 연속 10승 기록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토론토 가을야구’ 류현진에 달렸다

PS 직행 -1... 오늘 양키스전 선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포스트시즌(PS) 진출에 필요한 매직넘버를 ‘1’로 줄였다.

에이스 류현진이 25일 오전 7시 37분(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세일런 필드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등판해 승리하면, 토론토는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복귀한다.

토론토는 24일 양키스의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를 무너뜨리고 14-1로 크게 이겼다.

포수 대니 젠슨이 4타수 4안타 3타점의 불꽃타를 터뜨렸고, 캐빈 비지오(2타점), 보 비셋(2타점), 블라디미르 게레로(3타점) 등 야구인 2세 삼총사가 7타점을 합작했다. 시즌 29승 27패를 거둔 토론토는 1승을 보태거나 포스트시즌 막자 경쟁팀인 시애틀 매리너스가 1패를 하면 남은 3경기에 관계없이 가을 야구 진출권을 확보한다. /연합뉴스